

“전환의 시대, 대학의 역할은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것”

우 대 식

객원교수 · 휴머니티칼리지



최근 ‘사회혁신’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시장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사회혁신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듯하다. 주지하다시피 이때 말하는 사회혁신은 보통명사가 아닌 고유명사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이다. 사회혁신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회 전반에서 감지되는 사회혁신의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향과 내용이 제각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회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워 각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이야기함에 있어 다양성이 따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다. 다양한 도전과 실천이 다채로운 방식으로 병행될 때 사회혁신의 개념적 토대는 굳건히 다져질 수 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실험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사회혁신은 사회 변화를 추동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혁신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접근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석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혁신은 결과치(結果值)보다는 그 과정과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에 새로이 접근하는 것이다. 사회혁신은 정부와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해 왔던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지향한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접근, 그것은 지금까지 풀지 못한 수많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자 우리가 직면한 지구적 차원의 거대한 난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유럽의 사회혁신은 실천적·경험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론적 측면에서도 선도적이다. 유럽 사회혁신의 종합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TEPSIE(The Theoretical, Empirical and Policy Foundations for Social



기존의 방식과 관성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며 사회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대학이다.

(사진=언스플래쉬)

“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요구, 그리고 이에
반응하고 있는 사회혁신의
속도를 고려할 때 대학이
얼마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Innovation in Europe, 2012)에서는 사회혁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혁신은 수단과 목적에 있어 사회적이다.” 간단명료하면서도 난해하다. 그 이유는 ‘사회적’이라는 용어 때문일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해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 맥락에 내재되어 있는 요지는 바로 공공성(公共性)이다. 사회혁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적 실천을 강조한다. 참여와 협력의 순환 속에서 축적되는 시민적 자치 역량은 사회 변화와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일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팬데믹 같은 지구적 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원적 처방전인 것이다.

시대전환을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 이때 근원과 본질에 대해 논하는 것이 순진하고 느긋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혁신은 추상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역동적이며 사회 발전의 양식을 정립한다는 점에서 수렴적(收斂的)이다. 사회혁신에 관한 설명 중 ‘사회혁신 나선형 모형(Social Innovation Spiral)’이 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사회혁신은 사회적 탐색-아이디어 도출-사례 발굴 및 테스트-평가와 지속-성장과 확장-사회 변화 등 총 6개의 단계를 거쳐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 간다.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혁신의 과정이 ‘나선형’을

따라간다는 점이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사회혁신은 다층적이고 다발적인 실험과 실천들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수없이 반복될 수 있으며 다음 단계로의 전환이 보장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역량이 축적되고 사회 변화의 가능성은 점점 커져 간다. 사회의 질적 변화를 위한 도약 즉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한국 사회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이곳에서도 지금까지 수년간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들이 시도되어 왔다. 분명한 것은 그간의 사회혁신 노력이 일련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고 그 성과가 사회 변화의 양식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다. 리빙랩(Living Lab),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등 새로운 개념의 등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혁신은 정부와 시장의 프레임 속에서 트렌드 키워드로만 소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특히 경제적 합리와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초기 혁신적 시도들이 재단되거나 평가절하되고 있는 현실은 씁쓸함을 남긴다. 사회혁신의 탄생 배경을 볼 때 이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 모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

회혁신은 계속해서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그중에는 의외의 공간도 있다. 바로 대학이다. 사회혁신의 개념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대학의 사명은 사회적 변화와 발전에 있었으며 이를 위한 창의적 도전과 다양한 실험들이 선도적으로 실행되는 곳이었다. 대학은 사회혁신과 인재 양성이란 목표 아래 어느 곳에도 주어진 바 없는 특별한 자격과 조건을 부여받고 있음에 틀림없다.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요구, 그리고 이에 반응하고 있는 사회혁신의 속도를 고려할 때 대학이 얼마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大學) 없는 대학’이라는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주입식 교육방식과 경직된 학사제도 등 오랜 습관과 구조는 혁신의 장벽이 되어 대학이 사회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조차 버겁게 한다. 물론 국가와 자본은 여전히 강력하고 그 영향으로부터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과 관성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며 사회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대학이다. 질문을 던져 보자. 과연 지금 대학은 사회혁신을 위한 어떠한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는가. 전환의 시대,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